

전 가 동 향

765kV 송변전설비 한눈에 본다

지난 5월 동양최초의 상업운전을 개시한 765kV 송변전사업에 사용된 설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한전 전력계통건설처는 765kV 송변전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과 내방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65kV 신안성 변전소에 '765kV 송변전설비 전시관'을 설치, 개관식을 가졌다.

전력계통 건설처 한 관계자는 "765kV 송변전설비 전시관은 환경 친화적인 전력설비와 안정적인 전력을 기반으로 펼쳐질 풍요로운 미래사회에 대한 이상을 담고 있다"며 "생활 필수요소인 전기와 전력설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데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765kV 송변전설비 전시관은 약 60평 규모의 주제별 전시물과 영상실로 구성돼 있으며, 야외전시물과 전망대 그리고 현장으로 이어지는 관람코스를 마련, 효율적인 전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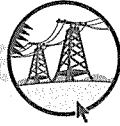
765kV 송변전설비 전시관은 크게 '환경, 미래 그리고 저녁', '전기의 생산과 사용', '765kV 송변전

사업', '생활과 전기', '영상실'이라는 5개의 주제로 나뉜다.

이 전시관에서는 우리나라 전력현황을 그래픽 패널과 영상물로 설명, 전력소비 증가에 따른 전력설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765kV 송변전사업에 대한 개요와 추진현황은 물론 765kV 송변전설비의 실물과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인들이 전력설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전자계 상식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전력설비와 생활주변 전기제품의 전자파를 비교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 또 약 20석 규모의 영상실에서 전체 전시물 내용을 함축한 종합영상물을 상영, 한전의 765kV 송변전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한전'이라고 새겨진 765kV 신안성변전소 준공기념 휘호석에 대한 제막식도 함께 거행됐다.



전 가 동 향

고마크, E마크에 흡수

E마크와 고마크가 7월 1일부터 E마크로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E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고마크제품에 대해 지난 6월 30일까지 E마크를 획득토록 했으며, 현재 전력연구원에서 개정중인 리베이트 운영지침이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두 마크에 대한 본격적인 통합은 7월 1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크통합이후에도 현재 고마크품목인 안정기내장형램프, 고효율안정기, 고효율인버터, 고효율자동판매기 등은 현행처럼 한전에서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로 리베이트품목에 포함된 고효율유도전동기

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사후관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토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한전이 고마크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 고마크제품의 사후관리는 한전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조만간 리베이트 운영지침이 산자부의 승인을 얻어 발표될 예정”이라며 “지원금을 받는 기존 고마크 제품은 모두 E마크 품목이므로 마크 통합으로 인한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마크가 새롭게 E마크를 획득할 경우 중복되는 시험항목은 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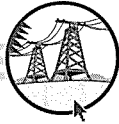
한전 구매 전선류 단가 총 2천71억 규모 추정

올해 한전이 구매할 전선류 단가계약 물량은 총 2천71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저장품목은 나경동선을 비롯한 알루미늄선, 600V비닐전연전선 등 26개 품목에 1천100억원 규모가 구매계약 될 전망이다. 저장품목 중에는 전선조합원 44개 업체가 935억원 상당을 계약체결하고, 나머지 나경동선(가공)등 76억원 규모(8개품목)를 재향균인회와 단가 계약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와 함께 공사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구매하는 비저장품목은 알루미늄선, 특고압수밀형 가공케이블, 저압CV케이블을 비롯한 33개 품목에 총 1천61억원 규모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구매계약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선류 단가계약은 그러나 정부가 당초 정부투자기관의 조기에산집행방식에 따라 상반기중에 60% 이상 계약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2·4분기



전 가 동 향

현재 10%정도의 발주실적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업계 및 관련단체는 이와 관련, 한전측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2단계사업추진과 월드컵 안전관

리등 다급한 현안문제로 구매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하고, 월드컵이 끝나는 3·4분기부터 구매계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마크 지원범위 확대

한전의 고마크기기지원범위가 절전용량 6kW에서 4kW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고효율조명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고마크기기에 대한 지원금은 최근 제품에 대한 시장단가가 하락한 것을 반영, 다소 낮춰진다.

한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한전의 고마크제품을 절전용량 기준으로 6kW이상 설치하는 수용가에게 장려금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고마크기 지원범위를 4kW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고효율조명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

가, 국가 에너지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전반적인 조명기기의 가격이 하락됐다고 판단, 지원금은 다소 적어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명기기에 대한 가격 하락은 원가가 낮아졌기때문이 아니라 업체간 과열경쟁에 의한 것이므로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고마크기 제조업체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지원범위가 절전용량 4kW까지 확대되므로, 영업범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관전주 개발 본격화

포스코가 한전, 강관전주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고강도 강관전주 개발을 본격화 한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지난 12일 한국전력, 한전 전력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강관전주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적·강관전주개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강관전주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제성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강관전주는 시공이 편리할 뿐 아니라 제품 성능도 우수하나 가격이 콘크리트전주보다 2배이상 높아 현재 전체 전주시장의 2% 가량 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하다. 강관전주 개발은 현재 한전, 포스코, 강관전주 제조업체가 참여해 태스코포스트팀을 구성하고,



5월중순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며 내년 4월까지 11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부터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고강도 강판을 사용하여 재료구입비를 절감하고, 미국, 일본에서 사용되는 선진기술을 도입, 가공에 소요되는 노임을 줄인다면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번 강관전주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되며 4억원의 연구개발 비용도 전액 부담한다.

포스코는 제품 개발의 설계,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을 총괄하며, 한전은 관련 규격을 만들고 제조업체는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새로이 선보일 고강도 강관전주는 고강도 탄소강을 사용, 강도 증가에 따른 강관두께 축소로 기존의

강관전주에 비해 무게가 30%이상 가볍다.

또 강관형상, 이음형식, 조립방법등이 개선돼 제작 공정이 단순화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기존 제품에 비해 50%가량 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비용절감효과가 크다”고 밝히고 “제품생산도 전주 규격별로 300kg~200kg까지 설계 하중이 다양한 전주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내년 하반기에 제품이 개발되면 로열티 없이 제작 기술을 제조업체에 이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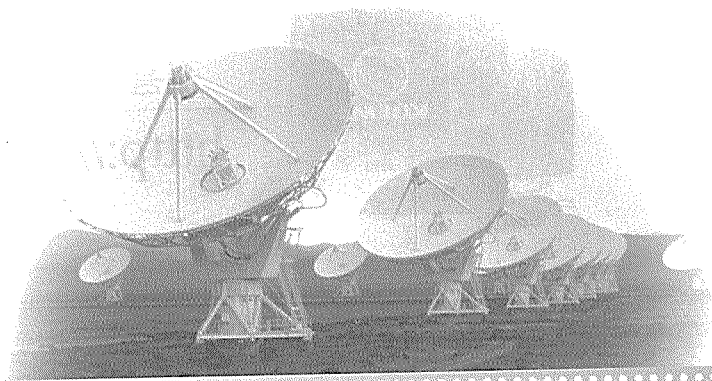
한편 이날 회의에선 배전용 전주의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경제적인 강관전주 개발 추진계획 및 미국 등 선진국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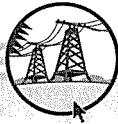
배전선로 부하 상시 감시체제 구축

한전은 올 여름철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공급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한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을 ‘하계 안정적 전력공급 특별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치러질 월드컵 경기와 지방선거 등 국가행사 전력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또 하계 최대부하에 대비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여름철 고장예방 특별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 가 동 향

765kV 2단계사업 내달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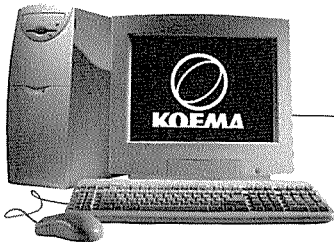
2단계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내달 중에 발주될 전망이다. 한전은 17일 울진 원자력발전소~765kV 신태백변전소 구간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본사 공사계획팀에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울진 원자력발전소~365kV 신태백변전소 구간에 대한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 현재 공사발주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동안 민원제기로 인해 경과지가 변경되면서 공사가 지연됐지만, 폭발적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수도권지역까지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더 이상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구간을 2개로 분리해 추진되는 이번 공사는 2

단계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 765kV 울진~신태백 T/L 건설공사로 총 선로길이가 45,763km에 달한다. 한전은 2차 사업구간인 삼척시 도계읍과 태백시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경과지가 변경돼 사업추진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구간과 2차구간 건설공사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울진원자력발전소 5, 6호기 준공시점인 2005년 6월까지 송전선로 가압이 불가능해 2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한전측 설명이다. 내달 중에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는 3개 공구 중 민원으로 경과지가 변경된 3공구(No.52 T/L~765kV신태백S/S구간)을 제외한 1공구와 2공구 총 28.315km 구간이다. 한전은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200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

